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구원

(시편 27:1-14)

시편 27편을 읽노라면 요지경 속에 나타난 인생의 파노라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기쁨과 소망과 만족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근심과 절망과 공포의 폭풍우 속에 떠내려가면서 애처롭게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편 27편은 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1. 여호와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1절).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겐 정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적군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전쟁과 질병과 역경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원수도 적군도 전쟁도 역경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2-3절). 그 이유는 시인이 빛이요 구원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여호와와 나의 빛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딤후 6:16).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욘 38:19). “주께서 옷을 입을같이 빛을 입으시며”(시 104:2).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삼하 22:29).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시 36:9).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빛과 연관시켜 말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도 여호와와 빛이라는 직설법을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무지합니다. 또 빛은 순결을 말합니다. 빛 앞에서는 더러운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갑니다. 빛은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또한 빛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빛은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다윗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빛이 아닌 영원무궁토록 자존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갈 바를 모르고 고민하는 이들,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는 이들, 희망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 소원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가 빛이 됩니다.

(2) 여호와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구출하다, 해방한다’의 뜻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옵니다(시 28:8).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3)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능력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모든 군사적 위험과 위험 가운데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빛은 영적 지식을 가져다줍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빛은 영적 지식을 가져다줍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고통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영적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고통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영적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시인의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4절).

다윗의 때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을 사모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7-8에서 야게의 아들 아굴은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평생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팔죽한 그릇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바울처럼 아름다운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

리로다”(5절).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6절). 우리도 환난 날에 여호와와 보호를 받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높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도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 뿐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3.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는 영접하시리이다”(10절).

세상에는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양이지만 지혜로운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소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14절).

우리는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기다림이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일 오후 9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

6월5일(월)-14일(수)까지 동아시아 교역자를 대상으로

민족과 세계를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는 KIMCHI 신학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6월5일(월)부터 14일(수)까지 10일간 동아시아 지역의 목회자 30여명을 초청하여 현지의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자국 복음화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다.

복음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과 핍박이 자행되고 있는 현지에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무사히 입국하여 세미나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요청된다. 한편 교회는 이영기 장로를 금번 KIMCHI 신학세미나 위원장으로 지도에 이성득 목사를 임명하여 준비를 위한 첫발을 떼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 금요일(4월14일) 금식 선포

오는 4월16일(주일)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4월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새벽기도회(오전 5시30분)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행적을 묵상하는 메시지를 받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회를 갖는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성 금요일

(14일)에는 해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서울교회 성도들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한다.

이날 금식헌금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14일) 다락방 모임은 당일 저녁 8시 교회에서 연합으로 경건하게 드린다.

제6차 교구찬양대회 열려

5월12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우리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교구별 찬양대회를 열어 교구 가족들이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삼기로 하여 격년으로 열리는 교구찬양대회를 5월12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기로 하였다.

금번 교구찬양대회는 각 교구별로 1개 팀이 출전하여 지정곡(찬송가 488장)과 자유곡 1곡을 부른다. 교구위원회에서 공개한 이번 찬양대회 심사기준은 참여도(50%), 준비성(15%), 음악성(15%), 호응도(15%)로 하여 참여도가 높은 교구가 단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단 참여도는 각 교구 세대수 대비 참가

인원으로 한다)

각 교구에서는 4월30일(주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악보를 교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찬양대회 당일 교구별 찬양순서는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 벌써부터 각 교구별로 이루어지는 각종모임을 통하여 비밀리에 연습에 돌입한 교구도 있어 찬양의 메아리가 주님부활의 계절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찬양대회에서 '사랑상'을 수상한 교구는 5월14일(주일) 찬양예배 시 특송을 받게 된다.

제5차 화요 정오음악회 열려

5월2일(화) 정오 첫 순서로 박혜원 오르간 독주회 가져

서울교회 다섯 번째 화요정오음악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화요정오음악회는 5월2일 화요일 정오에 박혜원 선생의 오르간 독주회를 시작으로 5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교회가 이웃 주민과 성도들이 누구나 와서 수준 높은 음악을 들으며 좋은 여가의 시간으로 혹은 전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준비되고

있는 화요 정오음악회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좁처럼 외부에서 접하기 힘든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화요 정오음악회에 많은 성도와 주민의 참석을 바란다. 자세한 연주 순서는 다음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5차 화요 정오 음악회	일정	연주자
	5월 2일(화)정오	박혜원 오르간 독주회
	5월 9일(화)정오	이성심 오르간 독주회
	5월 16일(화)정오	이상미 오르간 독주회
	5월 23일(화)정오	김진 오르간 독주회
	5월 30일(화)정오	오자경 오르간 독주회

농촌전도대 파송 안드레·루디아 연합으로 4월22일(토) 1일간 안흥교회로

올해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농어촌 교회와 결연된 전도회에서 자체적으로 일 년 중에 일정을 정하여 전도 및 봉사활동을 펴기로 한 교회 방침에 따라 전도위원회(위원장 하영수 장로)는 첫 농촌전도대로 안드레와 루디아 전도회 연합 농촌전도대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안드레루디아 전도회 연합 농촌전도대는 4월 22일(토) 1일간 경북 안동에 소재한 안흥교회(담임: 김성은 목사, 안동시 녹전면 신평2리 소재, 성인 18명 출석)로 파송 받아 하루 동안 전도에 힘쓰고 돌아오게 된다.

우리교회 농촌전도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농촌교회에 힘이 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사 지원 오늘 마감

장년부도 지원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는 제6기 단기선교사 지원이 오늘로 마감된다. 8월중에 파송 받는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사는 선교와 교사강습, 여름성경 학교, 찬양집회인도, 건축, 의료, 미용, 태권도, 무용 등 여러 분야에서 현지 선교사를 도와 선교활동을 펴게 된다.

특히 대학 청년부 소속 선교사를 이끌고 나갈 장년부 단기선교사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헌신할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다양한 행사 가져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는 다양한 행사로 신록의 계절 4월을 준비하고 있다.

고등부는 학부모 초청 모임을 오늘 10시10분 601호에서 열어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도하게 되며, 교육 1, 2곡은 4월6일(목) 오후, 교육 3, 4, 5곡은 4월 7일(금)에 대우빌딩 앞 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를 방문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멘관현악단 대장 임명

교회는 그동안 아멘 관현악단 대장으로 수고하시던 정인주 집사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사임을 하여 후임으로 아멘 관현악단 대장으로 이영조 집사(11교구)를 임명하였다.

스데반회 수련회 후기

종으로 부름받은 크리스찬 지도자

김영주 집사(스데반회 회장)

평택 무봉산 산자락에 위치한 수련원은 악동하는 봄 향취로 가득합니다. 수련장에 도착한 110여명의 안수집사 가족들의 설레임의 모습은 이미 성공적인 수련회임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24일 이종윤 목사님의 「크리스찬 지도자론」제하의 특강과 기도회 25일 새벽기도회와 김광신 장로님의 특강(영원한 처녀성-맑은 영)과 친교부 주관 체육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잠자던 잠에서 깨어나 회원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며 서로 섬기는 보람 되고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특강을 통해 국가적, 교회적으로도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바른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구해야 하며 크리스찬 지도자는 (1)믿음의 비전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섬기는 종으로서 부름 받고 훈련 받은 사람으로서 (2)「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유익」을 행동의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하며 (3)하나님의 주되심과 그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 그의 소유권, 회수권, 감사권, 사용권을 인정하고 절대 권위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청지기로서 사명감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특강을 한 김광신 장로님은 육과 영이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자기관리에 피를 말려야 하며 인생의 끝을 잘 풀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귀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기를 늘 돌아보고 부득이한 자세로 일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 받는 스데반회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70전도대 전도 사례

나의 등 뒤에서

남현주 집사(13교구)



70인 전도대와 루디아여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부족한 저를 70인전도대로 쓰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전도사례를 나누며 여러분들께 전도자로서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유년부 교사로 학교 앞 전도를 나갔을 때 한 초등학생을 만나고 그 어머니께 아이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허락받고 주일 아침 그 집을 방문해서 그 학생뿐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도 같이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이들을 데리러 방문해서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시길 권유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셨습니다. 그러던 중 2월의 몹시 추운 토요일 오후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분은 몹시 미안해하며 3월초에 등록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교회에 등록하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요 축회 전도 때 조원과 짝을 이루어 미도아파트를 방문해서 14층부터 가가호호 방문하며 어느 댁 벨을 눌렀는데 그 집 현관에 커다란 불교 액자가 걸려있었습니다. 그 분은 인상을 쓰며 "주민들이 싫어하니 전도하지 말라"며 문을 꽂아 버렸

습니다. 그 후 야나나 다름까 경비아저씨가 올라와서 "내 밥줄 끊어놓고 싶냐"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내려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이분이 강박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일로 제 자신이 낙심치 않게 더욱 담대해지게 용기를 주십사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교회에서 주신 전도용품을 드리자 조금은 누그러지며 오늘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핍박 중에도 용기를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일 아침 만나기로 약속한 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던 중 어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교회에 처음 왔다고 예배시간을 물어시기에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2부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과 같이 와서 등록하겠다고 시누이가 가족도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박이 넉클째 굴러온 기쁨을 느끼며 비록 직접 전도하지 않았으나 제가 낙심치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타인의 권유로 전도학교에 들어가서 목요 축회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등을 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여러 성도님들과 전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도

영광의 부활을 그리며

윤준준 장로(9교구)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생명 되신 주님을 잊고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행위로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혹시 지금 내 속에는 없는지...

사순절 이 시간,

특별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기도합니다.

영광과 승리의 부활 아침,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높이며 섬기며 증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지연(대학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금식을 시작한 저는 바쁜 직장생활과 진로에 관한 고민,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좀처럼 고난의 주님을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순절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시작했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기 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일들을 해결하려는 저의 모습은 여전했고, 감사하고 정말 흥미진진한 삶을 느끼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불안함을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상황에 대한 지혜와 위로로 매 순간 이끄심을 느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말씀하신 그 분을 의지하며 남은 시간, 사순절의 의미를 좀더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